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8. 5.(금)
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상원 (044-202-7470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유종호 (044-202-7446) 김병석 (044-202-7472)

디엘이엔씨 중대재해법 시행 후, 3번째 사망사고 발생

- 고용노동부, 즉시 작업중지 명령 및 특별감독 예정
- 사고현장 외 주요 시공현장에 대해서도 감독 및 점검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오늘 8.5.(금) 발생한 안양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
 - 사고현장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했으며,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외 주요 현장에 대해서도 감독 및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오늘 사고는 부러진 '콘크리트펌프카' 붐대가 떨어져, 그 밑에 있던 근로자 2명이 붐대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
 -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,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한 후, 원인 조사와 함께 「중대재해처벌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수사에 착수하였으며,
 -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임에 따라,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감독*도 실시할 예정이다.

*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→ 특별감독 대상

- 디엘이엔씨(시공능력평가순위 3위)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, 세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첫 건설사이며,

- * 3.13.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드럼에 맞음(사망 1명)
- 4. 6.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 후면과 철골기둥 사이에 끼임(사망 1명)

- 고용노동부는 지난 두 건의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, 42개소 현장을 감독하여 ‘안전조치 미준수 30건’을 적발*하고 대표이사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.

* 7.21. 보도자료 배포 “디엘이앤씨, 42개 전국현장 감독결과 발표”

- 아울러, 사고현장 외 디엘이앤씨 시공현장 10개소에 대해서도 긴급 감독을 실시하여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며(8월 중),

- 이번 감독에서 제외되는 주요 시공현장의 위험요인도 단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(8~9월, 안전공단,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확인).

-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

- “최근 안전관리 우수 건설사*와 취약 건설사 간 차이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”고 언급하며,

* 시공능력순위 1~20위 중 11개사에서는 올해 사망사고 미발생

- “디엘이앤씨에 대해 두 차례의 전국현장 감독을 실시하고,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경영자의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”며

- “시공능력평가 3위에 걸맞게,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닌 사고예방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하는 한편,

- “특히, 정부에서 최근 건설현장 기계·장비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수차례 안내*했음에도 불구하고, 지난 4월 굴착기 사고에 이어 이번 콘크리트펌프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* 7.28. 보도자료 배포 “대규모 건설현장 기계·장비 사망사고 주의”